

제20호 2020. 07.

코로나19와 도시, 도시 회복력과 도시정책 방향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김리영(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kimlee@gyri.re.kr

도시환경연구부 위촉연구원 허창호(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chur@gyri.re.kr

Contents

- I. 팬데믹과 도시계획
- II. 도시가 가진 위험과 도시회복력
- III.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과 분야별 대응
- IV. 코로나19 이후 도시정책
- V. 도시계획 주요 분야의 정책 방향



도시계획은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은 사람들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개선하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살아가는 도시는 자연재해,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으로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계획적 수단을 모색해왔다.

인류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의 활동은 우리를 위협하는 자연재해나 감염병과 상호 관련이 있다.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파괴가 이루어졌고, 이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 감염병 발생 등 도시에 사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는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조금씩 여는 것과 같다.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 뒤에서 무엇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당장은 알 수 없다. 현재의 코로나19의 확산과 공포는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일상이 이제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은 쉽게 누릴 수 없게 되었고, 슬픔을 나누는 것도 그리고 기쁨을 함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로 나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그리고 당장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는 그동안 인류가 쌓아놓은 과학기술에 희망을 건 문제해결 방안,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슬기롭게 공존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수단 등으로 관련한 세부적인 제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세계 경제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코로나19와 코로나 종식 이후의 세상에 대한 전망, 그리고 문제해결이나 예방을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들을 토대로 코로나19로 변화된 도시 내 일상과 코로나 종식 이후에 대한 전망 등을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우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이전에 발생했던 대규모의 감염병과 도시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그리고 인류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와 도시가 가진 위험요인들을 소개하고 인류와 도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도시회복력의 개념을 소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도시와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변화를 반영한 정부 부처별 정책과 도시정책 변화를 소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예방과 치유를 위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하나는 도시공간에 대한 생태백신을 구축하는 것으로, 자연의 조절 기능을 활용해 감염병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스마트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구축한 감염 차단 도시(Uninfection City)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추가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공간인 주거공간을 다루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시대의 주거공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I. 팬데믹과 도시계획

GYRI

□ 팬데믹의 역사와 도시계획

- 스페인독감 이후 100년 후 찾아온 코로나19
 - 5세기 전후부터 18세기까지는 주로 쥐로 인해 전해지는 플레이크(plague) 팬데믹이 대도시 중심으로 유행. 18세기부터 20세기는 물로 퍼지는 콜레라 팬데믹이 유행
 - 20세기에는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HxNx 독감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COVID-19 유행

<표 1> 역사적 팬데믹의 개요

팬데믹	기간	질병 / 매개	사망자(만명)
Antonine Plague	165-180	either smallpox or measles	500
Plague of Justinian	541-542	Yersinia pestis bacteria / Rats, fleas	3,000-5,000
Black Death	1347-1351	Yersinia pestis bacteria / Rats, fleas	20,000
New World Smallpox Outbreak	1520 – onwards	Variola major virus	5,600
Great Plague of London	1665	Yersinia pestis bacteria / Rats, fleas	10
Italian plague	1629-1631	Yersinia pestis bacteria / Rats, fleas	100
Cholera Pandemics 1-6	1817-1923	V. cholerae bacteria	100+
Third Plague	1885	Yersinia pestis bacteria / Rats, fleas	1,200 (China and India)
Yellow Fever	Late 1800s	Virus / Mosquitoes	10-15 (U.S.)
Russian Flu	1889-1890	Believed to be H2N2 (avian origin)	100
Spanish Flu	1918-1919	H1N1 virus / Pigs	4,0000-5,0000
Asian Flu	1957-1958	H2N2 virus	110
Hong Kong Flu	1968-1970	H3N2 virus	100
HIV/AIDS	1981-present	Virus / Chimpanzees	2,500-3,500
Swine Flu	2009-2010	H1N1 virus / Pigs	20
SARS	2002-2003	Coronavirus / Bats, Civets	770
Ebola	2014-2016	Ebolavirus / Wild animals	1.1
COVID-19	2015-Present	Coronavirus / Bats, camels	50 (확진 1,000)

자료 : <https://www.visualcapitalist.com/history-of-pandemics-deadliest>, 코로나에 의한 사망자는 2020년 6월말 기준

○ 중세 흑사병, 르네상스와 이상적 도시

- 14세기에는 흑사병(Black Death)으로 인해 이탈리아에서만 인구의 40%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 유럽 인구가 흑사병 발생 이전으로 회복하기까지 수백 년이 소요. 흑사병은 인간의 생사 결정, 그리고 종교적 신념과 봉건제와 같은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데 큰 역할. 그리고 합리적 이성과 인간 자체에 관심을 둔 르네상스시대의 문을 여는 것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 이상적인 도시를 계획, 흑사병 이후 르네상스시대의 눈으로 그린 이상적 도시 ‘팔마노바’ 별모양의 도시를 건설
- 팔마노바는 도시 중심에서 사방으로 거미줄처럼 길과 건물을 배치해 모든 곳이 훤히 보이는 별모양의 요새 도시 → 외부의 공격과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도시를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관리하는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



- 이름 : 팔마노바(Palmanva)
- 위치 : 이탈리아
- 건설시기 : 1593~1623
- 설계자 : 빈센트 스카모지(Vincent Scamozzi)
- 특징
 - 르네상스 시대 이상도시들 중 하나
 - 베네치아 공화국 방위를 위한 전초적 역할 수행이 목적
 - 별모양의 3겹의 방위벽으로 이루어짐
 - 3개의 동심원 : 각 구역은 사회계층 분리
 - 중앙광장은 부대집합장소

출처 : <https://librewiki.net/wiki/%ED%8C%8C%EC%9D%BC:Palmanova.jpg>

○ 근대 이후 유럽의 대도시, 도시를 개조하여 중세도시의 열악한 환경 개선

- 근대도시계획(modern town planning)은 공중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된 기원을 가짐¹⁾
- 나폴레옹3세의 파리개조 사업(1853-20세기초), 만성적 교통체증과 무질서한 건물들, 녹지부족과 상수도 및 하수도 체계의 부재와 같은 생활상의 불편 이외에 전염병 창궐과 같은 위생문제 → 파리 구조 개혁 추진, 오스만의 도시계획은 기존의 이상적 아름다운 도시 →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 최초의 도시계획으로 평가
- 유럽의 도시들, 19세기부터는 콜레라에 대응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스템, 주택 내 수세식 화장실 의무화 추진

○ 산업혁명과 근대 도시계획

- 질병이나 위생 등 다양한 문제로부터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1) 오미애외 7인, 2020, 공중위생과 도시계획(Ⅰ),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2020.3, 공중위생과 도시계획, 경제와 삶 컬럼,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news/>)

- 조성하고자 노력. 이상적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도시 내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감염병을 극복하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
- 영국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1848년 세계 최초로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 제정. 오염원과 주거의 분리. 도시계획제도의 시초로 건물 내외의 채광, 통풍 등을 위한 일정한 공간환경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거리청소 의무화. 현대적 공원의 시작 : 자본가들의 개인정원(park)을 노동자들에게 공공정원(public park)으로 개방 → 건강한 노동력 확보
 - 영국, E. Howard의 전원도시, 'Garden City Movement' 전개와 중밀도 전원도시 건설, 인구 및 고용의 상당 부분을 거대도시의 슬럼과 스모그 높은 지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방된 시골에 건설된 새로운 자족적 신도시 군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빅토리아시대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제안

피터홀의 '내일의 도시'에서 보여준 산업혁명 당시의 영국 런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도는 슬럼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갖지 못한다. 그곳은 수만 명이 함께 우글거리며, 노예무역선의 중간항로에 대해 들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공포로 둘러싸여 있다. 이 슬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고 심지어는 발밑에까지 흘러넘치는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 오르는 유독하고 악취가 나는 가스로 가득 찬 골목을 뚫고 지나가야 하며, 이곳은 또한 햇볕이 전혀 들지 않고 신선한 공기가 없으며, 깨끗한 물의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다. (중략)

썩어서 악취가 나는 빈민지역 임대주택의 한 방에는 한 가족이나 종종 두 가족이 거주한다. 한 위생 감독관은 하나의 지하실에서 아버지, 어머니, 세 아이, 네 마리의 돼지가 사는 것을 보고한다. 또 다른 지하실에서 교회의 봉사자는 천연두를 앓고 있는 남자와 여덟 번째 출산을 막 마치고 회복하고 있는 부인,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오물로 뒤덮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발견해냈다. 여기에서는 지하 부엌에서 7명이 살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는 같은 방에 죽은 채로 방치되어 있다. 다른 곳에서는 가난한 과부와 그녀의 세 아이가 살고 있으며, 한 아이는 죽은지 13일이 되었다. 마차 마부였던 그녀의 남편은 얼마 전 자살했다. (Mearns, 1883:4-5)

○ 이상적 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제안

- 프랑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Ville Radieuse) → 새로운 현대도시 도안(blueprint)으로 햇빛과 통풍을 중요시하면서도 기술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기계적 사고가 바탕
- 미국, Frank Lloyd Wright의 'Broadacre City'를 제안하여 저밀도 자급자족 도시 제안

II. 도시가 가진 위험과 도시회복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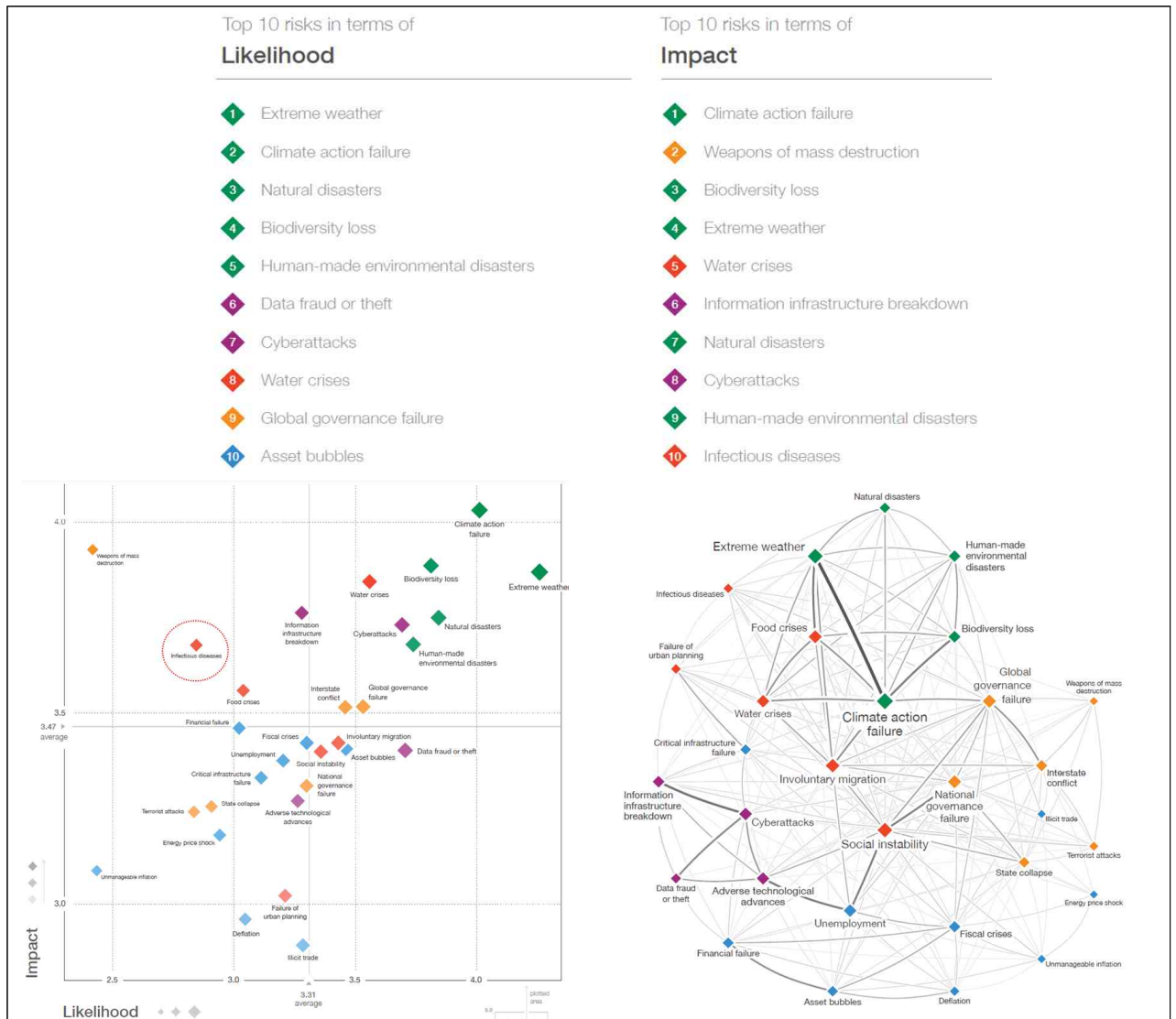
GYRI

□ 도시가 가진 위험요인

○ 세계경제포럼²⁾

-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 1월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올해 세계의 위험요인(risk)를 선정
- 전염병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지만, 발생에 따른 영향력이 높은 10대 위험 중 하나

<그림 1> The Global Risks Landscape 2020



2) WEF(2020.1), The Global Risks Report 2020

□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

- 도시에서 발생하는 충격(Shock)은 지진, 홍수, 가뭄, 화재 등과 같이 도시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급성적 사건을 의미하며, 반면에 스트레스(Stress)는 그 변화가 다소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 공동체와 시스템의 대응 능력을 저해하는 자극을 의미

<표 2> 도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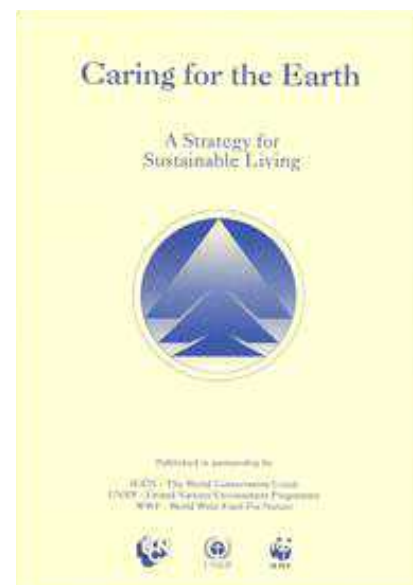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회적 스트레스	실업, 도시 빈곤, 이민 및 난민, 직업 교육 및 평생교육의 부재
문화적 스트레스	폭력, 마약, 범죄 등 장소에 대한 문화적 낙인
사회·기술적 스트레스	디지털 소외와 연계된 지식산업과 서비스 경제 등 새로운 종류의 직업에 대비한 양질의 교육 부재
생태적 스트레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도시 인프라에 대한 홍수, 침수, 범람 피해
사회·생태적 스트레스	오염으로 인한 건강 이슈, 도시 생태계의 빈곤화 및 도시 녹지에의 한정된 접근

출처 : URBAN RESILIENCE(https://urbact.eu/sites/default/files/resilient_europe_baseline_study.pdf)

□ 지속가능한 발전

- 브룬트란트보고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 브룬트란트보고서(Munro, 1991, Caring for the Earth)³⁾는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의 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 ⇒ 생태계의 환경용량 내에서 인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이라는 의미
-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
-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은 생태계 수용능력의 한계 내에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 중요한 의의 ⇒ 세대 간 세대 내 필요(needs)의 충족과 한계(생태계의 수용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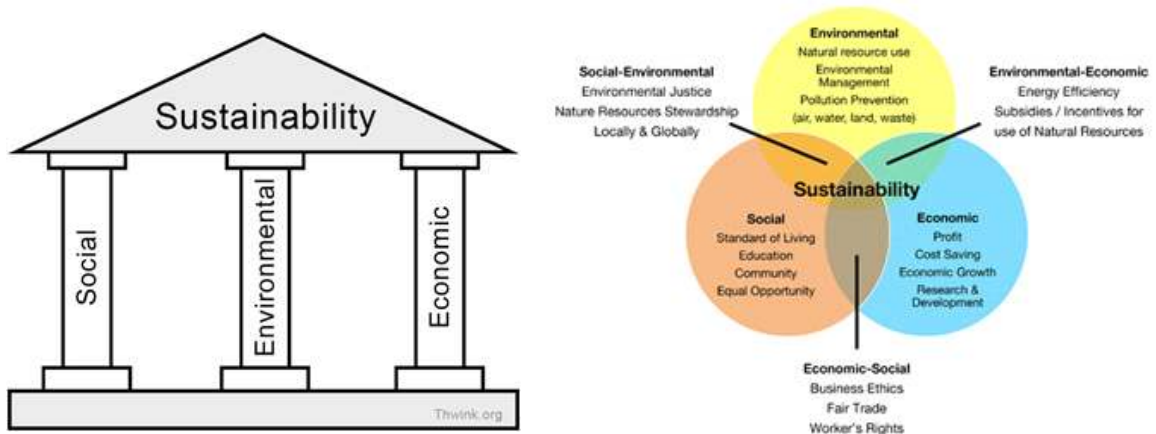
- 기술적 대체가능성 : 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 vs 약한 의미의 지

3) Munro, David A(1991), Caring for the earth : a strategy for sustainable living, IUCN, UNEP, WWF

속가능성(Tumer et. al., 1994)

- 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 : 여러 형태의 자연자본들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대체될 수 없는 것들임 ⇒ 모든 한계적 자연자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 약한 의미의 지속가능성(weak sustainability) : 환경(자연자본)이 개별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님. 단순히 여러 형태의 자본 중 하나에 불과. 인공환경(물적자본)의 재고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자본의 감소가 발생했다라도 총 자본재고가 유지될 경우 허용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 기술 대체 가능성
- 우리 공동의 미래 (1987 WCED), 지속가능발전이란 “생태계의 수용 능력 안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정의
 -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

<그림 2>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성하는 3가지 측면



□ 도시회복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제

- 도시회복력(Urban Resilience)⁴⁾

4)이클레이한국사무소 홈페이지 '도시회복력(Resilience)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2020.04.01.) 참조하여 재구성
 (http://www.icleikorea.org/_04/005/view?seq=2432)

- 회복력의 사전적 의미 : ‘어떤 자극으로 달라진 상태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힘’
- Resilience란 "the capacity to recover quickly from difficulties"라 정의하며 "어려움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
- 100 Resilient Cities, "도시 내의 개인, 집단, 기관, 기업, 그리고 시스템이 어떠한 극심한 충격(Acute Shocks)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Chronic Stress)에서도 생존하고, 적응하고, 성장하는 능력"으로 규정
- '회복력(Resilience)' 도시가 직면한 문제는 어려움에 직면한 도시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필요에 따라 도시의 모습과 기능을 적절하게 변경 ⇒ 예측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충격에 대비
-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서, 회복력은 “위기에 노출된 지역사회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구조와 기능에 도달하기 위하여 견디고 변화함으로써 이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설명

□ 회복력 있는 도시

- 도시 회복력을 개선을 위해,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동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중요
 - 도시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요소들 간의 상호 연관성, 직면할지 모를 위협 확인 → 도시 기반 강화, 도시가 직면할 잠재적 충격과 스트레스 이해 → 도시 내 시민들의 삶의 질, 도시의 질적 성장에 기여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도시회복력
 - 2015. 9월 UN총회에서는 국제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발표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총 17대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는 위기나 재난에 안전(safe)하여야 하며, 회복력(resilient)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

<그림 3>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목표 11은 도시 회복력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할 것(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 포용적인 회복력 있는 도시란 도시가 어떠한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핵심적인 기능과 구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충격과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므로써, 지속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변형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
- 회복력 증진은 위험요인을 평가·규명하고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시키며, 저항성, 적응력, 위기 대응력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

<표 3> 우리나라의 회복력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세부목표⁵⁾

목표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국토부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국토부 행안부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부 행안부
11-4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문화재청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행안부 국토부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환경부 산업부 행안부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국토부 행안부
11-8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	환경/국토 산림청

5)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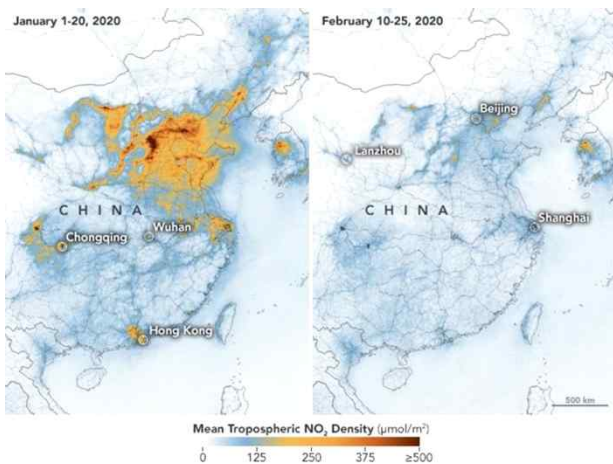
Ⅲ.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과 분야별 대응

GYRI

□ 도시 내 인간 활동의 감소, 지구의 안식년

○ 인간활동 위축으로 자연 순환 및 자정활동 증가⁶⁾

- 코로나19로 생산과 소비활동이 급격하게 감소. 도시를 잇는 교통, 생산 활동 위축으로 지구 대기에 온갖 유해한 가스를 뿜어대던 인간 활동 감소 → 봄철 미세먼지 감소, 대도시들에서도 보기도 못한 파란 하늘 목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인적 감소한 거리 → 야생동물 출몰 : 인간의 활동이 위축 → 자연의 순환과 자정활동이 왕성. 일부에서는 지구가 때 아닌 안식년을 갖는다고 표현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통해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3가지 기회의 관점을 고려해볼 필요 ① 새로운 도시 시스템을 시험하는 기회로 활용 : 지속가능발전 목표 11의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② 지구의 안식년 :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을 자각할 기회 ③ 새로운일-생활 시스템을 적용할 기회



미국항공우주국(NASA) / 코로나 이후 NO₂ 농도



Unsplash / 맑고 한산한 거리

□ 언택트 사회, 코로나19와 디지털 기술혁신⁷⁾

○ 소매유통업의 비대면·무인화는 주문·결제 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가상/증강현실(VR/AR)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

6) 이클레이한국사무소, 2020.4, '도시 회복력(Resilience)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http://www.icleikorea.org/_04/005/view?seq=2432)

7) 배영임·신혜리, 2020,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이슈&진단 제416호, 경기연구원, p.4-11

- 코로나19로 원격학습이 일상화되면서 가상/증강현실(VR/AR)·인공지능(AI)기술에 기반한 에듀테크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재택근무 경험은 원격근무 수요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협업툴이 등장
-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근무환경이 변하면서, 글로벌 원격근무 솔루션 시장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장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3.0%씩 성장. 최근 코로나19로 성장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최근 MS는 전세계 오프라인 매장을 영구 폐쇄하기로 결정.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상품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 매장 ⇒ 온라인으로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언택트 경영'의 상징적 조치⁸⁾로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의 촉매 역할

<그림 4> 포스트 코로나 19 일상생활 뉴노멀(예시)

원격근무	원격학습	홈키트	책배달
			
원격의료	동영상스트리밍	홈트레이닝	음식배달 로봇
			

출처 : 배영임·신혜리, 2020,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이슈&진단 제416호, 경기연구원, p.4

□ 과학기술, 산업정책 대응 동향⁹⁾

- 코로나 이후 이슈와 경제산업 변화
 -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되고, 국제질서가 다자주의 형태로 변화하는 분산·분권화, 그리고 국가권력이 강화되고 감시의 일상화 등 BIG brother, Super panopticon 형태의 강한 정부출현 등을 예견

8) 디지털타임스, 2020.6.28, '오프라인' 집어삼킨 온라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62902100151820001&ref=naver)

9) 김현철, 2020.6, 포스트 코로나 시대 R&D혁신과 산업대응 방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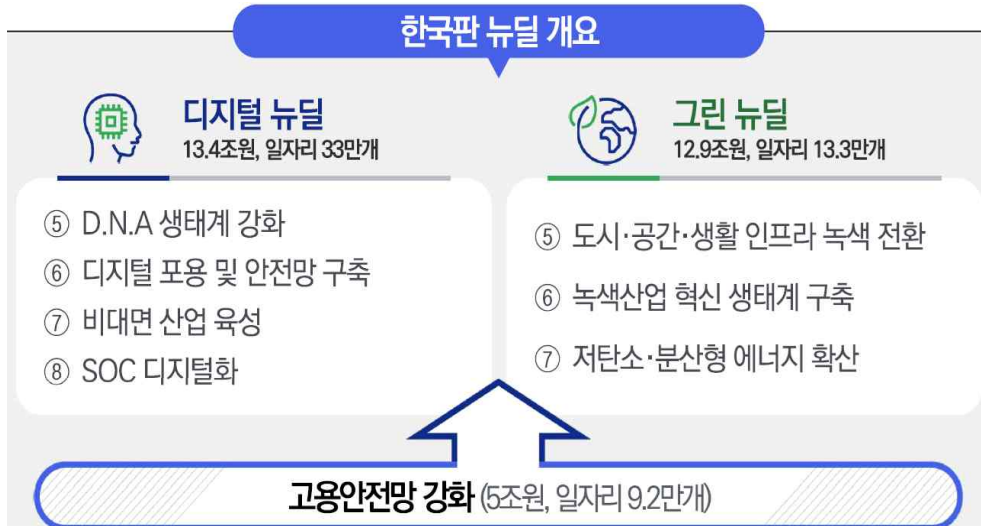
<표 4> 경제산업의 메가트렌드와 주요 내용

메가트렌드	주요 내용
비대면사회(Untact Society)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언택트와 디지털(온라인+스마트화)로 구성된 가상세계로의 모델링 가속 • 개인적인 영역에서 기업의 생태계까지 전 영역에 걸쳐 스마트화 가속
분산화 · 분권화(Decentr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이익우선주의로 인해 국제질서가 다자주의 형태로 변화 • 글로벌 교역 사이클 수준의 하락과 글로벌 공급사슬(GVC)의 단절 · 변화
디지털화 플랫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 Tele-X 등 원격 연계 각종 플랫폼 진화 ⇒ Tele-Work, Tele-Education, Tele-Nursing 등
BIG brother, Super panopticon 형태의 강한 정부 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과 감시가 일상화되는 뉴노멀 사회에서는 국가의 권력이 강화 ⇒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의 일상화 우려

출처 : 김현철, 2020.6, 내용 재구성

- 세계 각국은 시장에서의 유동성 부족 및 봉쇄조치에 따른 가계소득 저하, 기업도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실시
 - 미국은 금리인하, 양적완화 등 유동성 공급과 2.8조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실시 : 바이아메리카, 리쇼어링 정책 가속화
 - EU, 5,400억 유로 규모의 공동 대응방안에 합의, 경제회복기금 운영 논의 및 각 회원국의 유연한 재정운용 지원
 - 독일, 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 및 기업보조금 등
- 정부, 고용안전망 토대로 디지털 뉴딜 · 그린뉴딜 2개 축으로 총 76조원 수준 투자
 -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31.3조원 수준 투자, 일자리 55만개 수준 창출하고, 2023~25년, 45조원 수준 투자. 방역산업 동력화 및 BIG3(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차세대 신산업 육성, 유턴 · 첨단기업 유치 등 GVC허브화 계획
 - 그린뉴딜은 12.9조원의 투자를 통해 총 1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녹색산업 혁신, 녹색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 구현 등 3대 분야로 나눠 총 10개 과제를 선정

<그림 5>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개요



출처 : 김현철, 2020.6, 포스트 코로나 시대 R&D혁신과 산업대응 방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산자원부(2020.5.6.) 포스트 코로나 전략 방향 : 5대 변화 및 8대 과제 제시

- 산업자원부는 2020.5 코로나 이후의 산업전략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음. 코로나19이후의 전망은 세계적인 석학의 견해를 종합하여 정리하였으며, 코로나19는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서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변화는 ① 감염병 상시화 가능성과 국가별 방역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개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 ② 비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며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 비대면 활동 크게 증가, ③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일상화와 ‘저비용’ 효율중심주의 기업경영 퇴조, 투자 여력 감소 및 긴축 경영 확산, ④ 개인, 효율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 연대(solidarity), 공정(fairness), 책임(responsibility) 등의 가치 부각, ⑤ 지역블록화로 국가간 무역장벽 부활가능성, 정부역할 확대와 신자유주의 퇴조 가속화
- 변화에 따른 대응과제로 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밸류체인 핵심기업 유치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 구축 ② 산업 현장의 복원력(resilience) 극대화 지원 ③ K-방역·K-바이오 육성 ④ 비대면산업 육성으로 5G, 디지털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⑤ 저유가를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전환의 기회로 활용 ⑥ 기업 활력·투자 촉진,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 촉진 ⑦ 경제주체간 연대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적극창출

<표 5>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과제

구분	변화		대응과제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보건환경	간헐적 감염병	감염병 빈발	❶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상품화 ❷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글로벌 조달	로컬 조달	
경제환경	대면, 석유수요 증가	비대면, 석유수요 감소	❸ GVC 재편 → 청정 생산기지 구축 ❹ 비대면산업 육성 ❺ 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
	비용절감, 효율	재고확보, 회복력	
기업경영	개인·효율	연대·협력	❻ 기업활력 촉진 + 사업재편 활성화
사회가치	개인·효율	연대·협력	❼ 기업간 연대 및 협력
교역환경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보호무역	❽ 글로벌 협력 리더십

출처 : 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 2020.5.5, 일자

IV. 코로나19 이후 도시정책

GYRI

□ 코로나19와 도시계획 여건 변화¹⁰⁾

- 도시공간은 높은 밀도와 집중, 그리고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
 - 공공보건 의료시스템, 초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좋은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접근성. 그리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밀도 높은 거주환경
- 도시공원, 수변공간 등 공원녹지시설의 중요성 부각
 - 자연녹지의 생태회복력 강화,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공원녹지 활용, 도시 내 대기의 순환을 유도 하는 바람길체계 등 도시 내 시민들이 건강한 도시환경 구현 필요성
- 다양한 교통수단 : 서울 대중교통은 20%가 감소. 반면 따릉이(66%), 나눔카(51%), 보행은 증가
- 감염병 및 도시 재난에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회복 탄력적인 도시공간구조의 강화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 필요
- 비대면 사회의 이동 최소화를 위한 도시공간 구조 모색

10) 서울연구원, 2020.5,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정책제안 토론회자료

- ① 자족성과 다양성을 가진 다핵의 공간구조 : 직주근접을 강화한 자족도시, 고용과 지역별 필요로 하는 시설, 서비스가 있는 중심지 기능의 다핵도시화
- ② 도보로 접근가능한 근린생활권 조성 : 지역생활권을 기초로 한 자족형 근린생활권 조성, 도보로 접근가능한 생활SOC공급과 거점이 되는 공공보건 의료 시설(생활권 단위 공공보건소), 주거지와 연계한 생활권녹지체계 등



출처 : 서울연구원, 2020.5,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정책제안 토론회자료

- 토지이용 및 시설물 이용형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리기준 마련¹¹⁾
 - 용도별 토지이용면적 배분,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시설물 설치·운영 기준 마련

□ 감염병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방향²⁾

-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정책이 도시사회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지표의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현재 도시정책 중에서 가로활성화, 관광도시, 압축개발 정책,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정비, 자연환경 보호, 대중교통활성화, 공유경제, 포용도시와 국제화도시 등은 감염병 대응책과 갈등관계에 있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갈등관계에 있는 도시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재평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생활인프라나 디지털 인프라 중심의 도시계획 강화 필요

11) 이왕건, 2020.5, 코로나 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국토정책브리프, 국토연구원

12) 김동근, 2020.6, 포스트 코로나시대,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 방향,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연구원

<표 6>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도시 분야 계획요소의 관련성

구분	현황	도시분야 관련성
의료 보건	인명피해(특히 노인계층)	고령화지수, 취약계층 분포
	개인위생(마스크·손소독제)	공공보건
	감염병 전문 병실 수요 증가	의료 분야 생활인프라·공공의료시설 계획
상업 여가	서비스업 매출 감소	도심지역 상권 쇠퇴
	배달전문점 활성화	주거지 내 상업시설 증가
	온라인 구매 증가	창고, 유통관련 시설
	대형 상업시설의 매출감소,	상가 공실률 증가 상업시설 수요 변화
	외부활동 선호(공원 산책 증가)	공원, 녹지, 수변공간 등 공급 필요
	실내 여가 감소(노래방 등), 컴퓨터 게임 1인 미디어 증가	상업시설 수요
	숙박시설 이용률 감소 관광,	숙박시설 수요
교통	자가용 선호	도로용량, 온실가스 배출 변화
	대중교통 기피	대중교통 노선 신교통수단의 도입, 역세권 개발
	통근통학 통행 감소	직주근접 정책 필요
	택배, 배달차량 증가 택배,	배달차량을 고려한 건축계획
주거	주택 내 거주시간 증가	1인당 주거면적, 노후불량주거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폐쇄 공공시설 수요
	외국인 차별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고용 산업	제조업 생산 어려움, 해외 수출 어려움	산업단지계획, 개별입지공장
	재택근무·재량근무·격일근무	업무시설 면적 수요
	화상회의 공유오피스,	공유회의실
	실업률 증가, 소득감소	지역 쇠퇴
교육	온라인 교육 증가	상업시설 수요 변화
	학교개학 연기	학교시설 수요

출처 : 김동근, 2020.6,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 방향, 국토이슈리포트 제17호, p.4.

□ 국토부, 코로나 이후 국토교통 정책방향¹³⁾

- 도시 : 사회재난은 도시발전의 동력, 코로나 위기에서도 전염병에 강한 새로운 도시구조 구축, 도시 계획기법·제도 변화,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도시를 진화
- 주거 : 휴식공간에서 생산과 문화레저 공간으로 기능이 확대 → 다양한 가치실현의 공간

13) 국토교통부, 2020.6.4, 코로나시대, 국토교통 정책방향의 전환, 보도자료

- 교통 : 공공 대중교통 서비스 양과 질을 유지 & 개인화된 교통수요 충족이 중요한 과제
- 산업 : 물류량 급증에 대응한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 선진적 방역을 제조업 리쇼어링과 해외투자 유치로 이어가기 위한 산업 입지정책 필요
- 사회안전 :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취약계층 주거권 보호 필요

비대면 활동 증가, 사회적 밀집 완화로 인한 변화

언택트 Unfact



온라인 경제 활성화
생활물류 증가

일하는 방식 변화
주거공간 복합화
교통패턴 변화

초개인화 Hyper-Personalization



사적공간인 집의 가치 주목
커뮤니티 중심 도시구조

스마트 개인 맞춤형 서비스
데이터 기반 정책
퍼스널 모빌리티

회복력, 포용성 Resilience, Inclusiveness



사회 안전망 중요성
중대 및 공공의료 확대
취약계층 배려

불황과 재난을 고려한
강인한 산업구조

미래 정책 방향

도시 도시는 진화하며 발전할 것입니다.



주거 집이 경제·문화 중심으로 부상합니다.



교통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이 될 것입니다.



산업 위기에 강한 산업구조를 구축합니다.



안전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1 변화에 유연한 도시계획·토지이용 방식 구축
- 2 지역공동체와 커뮤니티 중심 개발 패러다임 중요성
- 3 디지털 도시인프라 확대
- 4 그린 인프라, 녹색건축 등 그린뉴딜의 본격적 추진

- 1 다목적(업무, 레저 등) 복합주택 확산
- 2 주택기반 의료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홈 개발 및 보급
- 3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주택공급 및 주거정책체계 구축

- 1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
- 2 다양한 혁신 교통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 3 미래 교통체계를 견인할 제도적 기반 마련

- 1 언택트 핵심산업인 물류산업 도약을 위한 혁신
- 2 항공산업 위기대응능력 제고
- 3 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입지공급 정책
- 4 건설과 부동산 산업의 스마트화

- 1 SOC 감염병 대응매뉴얼 등 국토위기대응 능력 강화
- 2 속도감 있는 국가 SOC 지능화 추진
- 3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 4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정책 확대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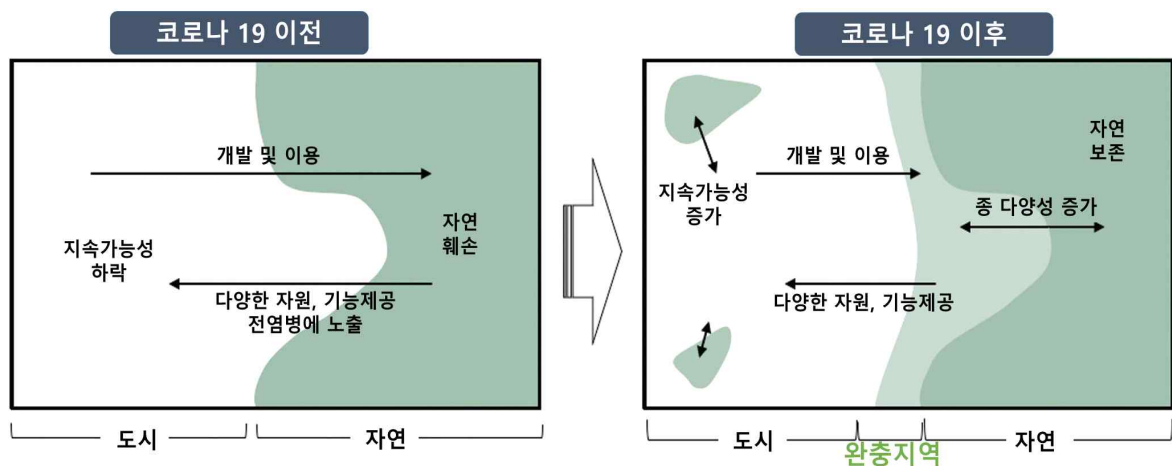
V. 도시계획 주요 분야의 정책 방향

GYRI

1. 국토, 도시공간에 대한 생태백신 구축¹⁴⁾

□ 개념과 필요성

- 감염병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건축물의 친환경적인 리모델링,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국토 및 도시 차원의 그린인프라 확충 필요
-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제약사가 만드는 화학적 백신, 사회 구성원 간 거리를 두는 사회백신, 그리고 자연의 조절 기능을 활용한 생태백신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안(CBS2020; 박중순외, 2020)
- 생태백신은 자연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적 연결을 고려한 처방으로 설명할 수 있음.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한 합리적 보전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임
- 동일한 면적의 서식처를 보전하는 경우, 단절된 두 개의 지역을 보전하는 것보다 연결된 보전형태가 종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물의 외부 노출 빈도를 낮춘다는 것임



박중순 외, 2020, 국토연구원, p.22

- 제러미 리프킨(2020)¹⁵⁾이 언급했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와 가치를 창출하며, 화석연료의 좌초자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회요인이라는 설명

14) 박중순·윤은주·성선용·이동근(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생태백신 :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의 내용을 요약

15) 제러미 리프킨, 2020, 글로벌 그린 뉴딜, 안전환 옮김, 서울: 민음사

□ 생태백신 구축 방향

- 그린뉴딜을 가속화하는 것과 함께 그린뉴딜이후의 새로운 탄소제로 공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 ▶ 토지이용 계획에서부터 스마트 그리드, 건물 단위 에너지 자급자족, 이동량 축소를 위한 배치 고려
 - ▶ 그린뉴딜 과정에서 수요량이 감소할 물리적 공간에는 탄소 흡수원이자 다양한 혜택을 창출하는 그린인프라 도입
 - ▶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제로 녹색경제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다양한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을 저감하는 등 선순환 효과 기대

□ 도시차원에서의 대응 방향

① 소생활권 내 그린인프라의 확충

- 그린인프라의 사회경제적 기능 :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 ⇒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공간 대신 도시공원, 뒷산 등 자연친화적 공간에 방문객 증가 ⇒ 생활권단위에서 충분히 공급 필요
- 생활권 단위의 그린인프라 확대의 기대효과 : 생활권 간 불필요한 이동 감소 ⇒ 전염병 확산 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 기대
- 생활권별 인구구조 및 기존의 환경 수준에 기초한 그린인프라 수요 파악, 생활권 내 어디에 얼마만큼의 그린인프라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

② 다기능 그린인프라 구축

- 그린인프라를 구축시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야생동물 서식처 기능, 열섬현상 완화와 물 순환 기능, 그리고 심미적 기능 중 복수 기능을 함께 포함
- 코로나19이후 그린인프라의 기능은 재해로부터의 피난처와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완충 기능까지 확대

③ 바람길 조성, 건축물의 배치 및 고도 조절

- 홍콩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1755명 감염, 299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겪은 이후 도시의 통풍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설계 기법과 자체 평가시스템을 개발(박종순, 박태선, 김은란 외 2019¹⁶⁾; 박종순외, 2020)
- 건축물 배치와 고도 조절을 통해 바람길을 조성하고, 도심 내 병원소를 빠르게 도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음

16) 박종순·박태선·김은란·이상은·안승만·이정찬·성선용 외, 201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연구-바람길 적용을 중심으로, 국토정책Brief 753호, 세종: 국토연구원

2. 감염차단 도시(Unfection City)¹⁷⁾ : 스마트 감염병 감시시스템

□ 개념과 필요성

- 기존 감염병 감시체계 및 역학조사 방법의 한계점
 - 감염병 보고 의무자의 자발적인 실천에 전적으로 의지. 신고 의무자에게 이러한 신고 과정은 노동집약적인 과정이며, 신고의 누락 또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
 - 대부분의 방역정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한계.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
-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의 도래와 함께 감염병 대응에도 기존의 원시적인 방역체계에서 벗어나 첨단 신기술의 시대에 따른 신개념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
- ‘신개념 Unfection City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Unfection city는 도시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공원, 도로, 인도, 업무공간, 생활공간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체에 감염차단 개념이 적용된 도시 구축

□ 스마트한 감염차단 도시 구축

- 스마트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시스템 구축
 - 의료인의 신고의무와 확진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동적, 노동집약적인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체계의 한계 ⇒ 스마트 감시체계 및 역학조사 시스템, 통합 빅데이터 구축
- 언택트 시대의 첨단 방역 패러다임으로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모임 자제 등 개인의 실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존의 원시적인 방역정책에서 ⇒ 인공지능과 드론 등의 신기술 활용
 - 실시간 위험예측과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신기술 개발과 첨단 방역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스마트 시티와 함께 ‘감염차단 도시(Unfection City)’ 개념 도입
 -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강력한 방역에도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주점, 노래방 등 근원적으로 방역정책이 작동할 수 없는 사각지대 발생 ⇒ 정책이 아닌 기술로 해결
 - 도시의 설계단계에서 ‘Unfection City’의 개념을 도입, ‘비감염 건축물(unfeccion building)’ 또는 도시의 모든 환경을 감염차단 소재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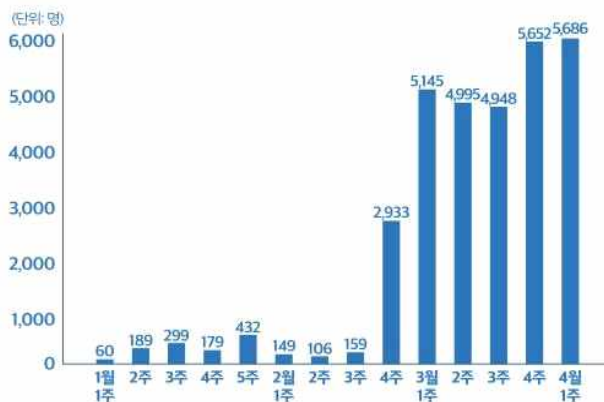
17) 이은환, 2020,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의 시대, 감염차단도시(Unfection City)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슈&진단, 제424호, 경기연구원

3. 코로나19이후, 언택트시대의 주거공간

□ 여건변화와 기능변화 요구

-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재택근무, 원격근무제, 시차출근제 등 유연근무 등을 실시 ⇒ 기존의 업무공간과 업무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재택근무와 관련한 기능(사무공간), 안전 등 주거환경에 대한 다양한 기능 요구
 - 쾌적한 주거공간과 친환경, 안전 등의 주거의 질에 대한 욕구 등 주거수준 상향 욕구 증가

| 유연근무제 지원신청 추이 (1.1~4.5)



| 유연근무제 유형별 신청 현황 (2.25~4.7)



출처 : 고용노동부, 2020.4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공간 : 감염병이나 자연, 사회적 재난에 취약
 -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상대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음
 - 주거취약계층인 노숙인, 고시원·쪽방 등의 비주택 거주 가구 그리고, 지하나 반지하 거주 가구 등은 감염병과 폭염이나 화재와 같은 사회, 자연재난에 취약. 여기에 더해 경제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은 시급한 문제(강미나외, 2020)¹⁸⁾



출처 : 강미나·이후빈, 2020.6,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강한 집, 건강한 이웃, 국토, 국토연구원, p.31

18) 강미나·이후빈, 2020.6,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강한 집, 건강한 이웃

□ 주거공간의 규모(면적), 기능 변화 고려한 주거기준 검토

- 유연근로제나 재택근무의 증가 ⇒ 주거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규모의 확대와 기능변화 필요
 - 사회적거리 두기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여기에 더해 재택근무나 온라인 학습등이 증가하면서 주거공간은 사무공간, 학업공간, 가사, 여가와 문화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요구
 - 환기나 채광 등 주택의 기능과 그리고 자연녹지나 공원 등과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
- 주택의 규모, 주거면적과 관련한 문제
 - 사람들이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 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¹⁹⁾ : 최저주거기준의 검토와 1인 가구 문제²⁰⁾ 검토
 -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가 정해져 있음
- 최저기준에 의한 필수적인 설비기준
 -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이외에도 구조나 성능, 환경적 기준
 -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다섯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활용할 것 ②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③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할 것 ④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지 말 것 ⑤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

<표 7>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수 (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m ²)	
		최저주거기준	유도기준	최저주거기준	유도기준
1	1인 가구	1 K	2 K	14	33
2	부부	1 DK	4 DK	26	50
3	부부+자녀1	2 DK	4 DK	36	60
4	부부+자녀2	3 DK	4 DK	43	66
5	부부+자녀3	3 DK	4 DK	46	70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 DK	55	83

주 :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1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9613>)

20) 박미선, 2020.5,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제16호, 국토연

- 국토교통부, 주택은 기존 휴식공간 ⇒ 생산과 문화레저 공간으로 기능 확대
 - 획일화된 주택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실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환²¹⁾
 - 최저주거기준 개정방향은 ① 평균 주거면적 변화와 실태조사 등을 통한 면적 기준 개선, ② 주거 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기준 추가 ③ 일조량, 층간소음 등 환경요소를 구체화 ④ 기타 공유주택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 등
- 고령인구의 증가와 최근 코로나19 이후의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언택트 문화에 대응,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고령인구의 증가 등)을 감안한 주거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 모색 필요

21) 국토교통부, 2020.6.4, 코로나시대, 국토교통 정책방향의 전환, 보도자료

참고문헌

- 강미나 · 이후빈, 2020.6,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강한 집, 건강한 이웃
- 고용노동부, 2020.4, 유연근무제 관련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2020.6.4, 코로나시대, 국토교통 정책방향의 전환, 보도자료
- 김동근, 2020.6,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 방향, 국토이슈리포트 제17호, 국토연구원
- 김현철, 2020.6, 포스트 코로나 시대 R&D혁신과 산업대응 방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박미선, 2020.5,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제16호, 국토연구원
- 박종순 · 윤은주 · 성선용 · 이동근(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생태백신 :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의 내용을 요약
- 박종순 · 박태선 · 김은란 · 이상은 · 안승만 · 이정찬 · 성선용 외, 201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 · 환경계획 연계 방안연구-바람길 적용을 중심으로, 국토정책Brief 753호, 세종: 국토연구원
- 배영임 · 신혜리, 2020,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이슈&진단 제416호, 경기연구원, p.4-11
- 산업통상자원부, 2020.5.4, 코로나 이후 산업전략 추진, 보도자료
- 서울연구원, 2020.5,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정책제안 토론회자료
- 오미에 외 7인, 2020, 공중위생과 도시계획(I),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왕건, 2020.5, 코로나 19 시대 도시 사회 · 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국토정책브리프, 국토연구원
- 이은환, 2020,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의 시대, 감염차단도시(Unfection City)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슈&진단, 제424호, 경기연구원
- 제러미 리프킨, 2020. 글로벌 그린 뉴딜. 안전환 옮김. 민음사
- 피터홀, 2009, 내일의 도시, 임창호 · 안건혁 역, 한울아카데미
- Munro, David A, 1991, Caring for the earth : a strategy for sustainable living, IUCN, UNEP, WWF
- WEF, 2020.1, The Global Risks Report 2020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9613>)
- 김현수, 2020.3, 공중위생과 도시계획, 경제와 삶 컬럼,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news/>)
- 디지털타임스, 2020.6.28,  오프라인  집어삼킨 온라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62902100151820001&ref=naver)
- 이클레이한국사무소, 2020.4, '도시 회복력(Resilience)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http://www.icleikorea.org/_04/005/view?seq=2432)
-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 URBACT(https://urbact.eu/sites/default/files/resilient_europe_baseline_study.pdf)
- visualcapitalist(<https://www.visualcapitalist.com/history-of-pandemics-deadliest>)

고양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20호

발행일 2020.07.06.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TEL 031.8073.8341
FAX 031.8073.0710
HOME PAGE www.gyri.re.kr

ADDRESS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고양시정연구원(GYRI)**

-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